

된다. 城內에는 西쪽을 向한 西將臺(假稱)址와 南將臺址의 礎石은 比較的 잘 保存되어 있으며 其他 三個處에 建物址가 있으나 城內에 民墓가 投葬되면서부터 礎石을 뽑아다가 墓築臺를 쌓은 關係로 規模를 알길이 莫然하다. 礎石은 全部 自然石으로서 其中에는 直徑 一m 八〇cm의 巨石도 使用되어 있다. 城內에는 十年前까지도 깨끗한 우물이 샘 솟아 數百名의 學生이 道風가서도 充分히 飲料水로 使用되어 왔다고 하나 이제 沒워져서 모두 墓地로 化하고 말았다. 城池는 東西 直徑 二四m 南北 直徑 一三m 로서 規模가 整然하다. 特異한 것은 西·南將臺앞에 排水口가 三個處마련되어 있는데 이 排水口가 바로 城壁으로 빠져흐르는 것이 아니고 現在 남아 있는 城壁의 十餘m 地下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城西側 城壁아래 샘이 하나 있는데 마침 이날 巫堂이 굿을 하고 있기에 물한모듬 얻어 마시고 물의 量을 물으니 今年같은 早魃에도 조금도 줄은 일이 없다고 한다.

이 土城은 새로이 細部的인 調査가 實施되어 保存되어야 할 것을 強調하는 바이다.

### 資 料

#### 高麗在銘香壇의 新例 二座

黃 壽 永

모두 今年에 出土된 大小 二座인 바 그 中小形一座는 爐身 뿐이다. 모두 無文이나 高麗 立杯形香爐의 通型으로서 오랜 土中으로 靑綠銹가 덮여 있다.

A, 丙戌銘 靑銅小形香壇(現高 九·七cm 上徑 一五·九cm)

臺具를 缺失하고 圓盤만이 남아는데 銘文은 廣緣 裏面에 一行의 楷書體로 陰刻되어 있다(字徑 二·〇—二·五cm).

丙戌十一月 日碧溪院主勝眞加成

高麗下代 十三世紀作으로 推定될 뿐 碧溪院기타 出土地未詳 梨花

女大博物館所藏(十月 十七日 調査)

B, 戊子銘靑銅香壇(全高 二五·五cm 上徑 二二cm 下徑 一五·二cm)

따로 마련된 身臺가 結構된 通型的 立杯形通式의 香爐인 바 壇體中央에 太細三重帶 一條가 둘러 있는 것은 特色이다. 無文인 바 銘文은 臺具下緣을 돌아서 一行으로 陰刻되었는데 楷書로서 字徑 一·〇cm

戊子二月日 旌施前香壇三都卜十一斤 信懷木

五人次知造納

施納寺院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阿旌施 三尊佛앞에 奉納키 위하여 三座鑄成하였던데 그 都入重量이 十一斤이라 하였다. 江原道出土라고 傳하나 未詳이다. 그리고 이 在銘香壇과 같이 同大의 靑銅圓臺註(高三十八cm 로서 上盤徑 十七cm 下臺徑 十九cm) 三個(그中 一個는 下座破損分離)가 同伴出土되었는데 모두 上盤周緣에 다음과 같은 陰刻된 一行의 銘文이 있어 上記香壇銘과 거의 같으므로 보아 同一人들에 의하여 同時鑄成되어 같은 彌陀앞에 施納된 것이 틀림없다.

戊子二月日 旌施前三內大三信懷木五人次知造納(字徑 〇·五—一·二cm)

(註) 圓形下臺에는 眼象 三이 둘러 있으며 그 위에 相輪型牽柱가 있고 그 頂上에 圓盤이 얹어져 있다. 佛具의 一種으로 보인다.

### 報 告

#### 新羅五岳調査(鷄龍山地區第二次)

이번 調査는 麗代의 碑片이 發見되었던 龜龍寺址의 試掘과 百濟瓦片의 蒐集되었던 新元寺의 百濟建物址를 確認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그리하여 龜龍寺址에서는 一部試掘을 通하여 大小 八十餘개의 文字·紋樣碑片과 多量의 無紋碑片을 찾아 내었으며 따라서 碑閣建物址도 밝힐 수 있었다. 碑文은 一三〇字를 완전히 판독할 수 있는데 字體가 前面이 小(七分(一·三cm))後面이 크다는가(九分(三cm)) 歐陽詢筆法의 楷書體等은